

- 안미영, 「4.19직후 사상계의 민주화담론과 소설에 제기된 연좌제문제: '김동립의 연대자와 김이석의 흐름속에서'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43,
- 오승용·정호기, 『봉강 정해룡 연구』(초고 미출판)
- 이용기, 「이산가족연구 어디까지 왔나」, 『역사비평』44, 1998.
- 안종철 외, 『근현대의 형성과 지역사회운동』, 새길, 1995.
- 조성훈, 『미귀환 국군포로,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 이수정, 「국가 판타지와 가족의 굴레: 월북자가족의 남한 가족되기」, 『비교문화연구』16-1, 2010.
-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 한국전쟁과 젠더』, 서해문집, 2004
- 이임하, 『전쟁미망인, 한국현대사의 침묵을 깨다 : 구술로 풀어 쓴 한국전쟁과 전후 사회』, 책과함께, 2010.
- 이장희, 「이산가족의 재결합과 분단독일의 사례」, 『인도법논총』,
- 임순희, 『남북 이산가족문제 :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통일연구원, 2008.
- 전병재, 「민족이산과 이산가족찾기 운동의 사회적 합의」, 『社會科學과 政策研究』, 1984.6, 서울대학교 社會科學研究所.
- 정종희, 「통일에 거는 광명천지」, 『월간 중앙』1990년 2월호.
- 조성미, 「월북자가족의 생활경험과 월북의 의미체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조은, 「분단사회의 '국민 되기'와 가족-월남가족과 월북가족의 구술생애이야기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71, 2006.9.
- 조은, 「전쟁과 분단의 일상화와 기억의 정치- '월남가족'과 '월북가족' 자녀들의 구술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77, 2008.3.
- 조은, 「한국전쟁의 긴 그림자 : '월북가족' 여성들의 생애이야기」, 『구술사연구』2-1, 2011.
- 중앙일보특별취재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하』, 중앙일보사, 1993.
- 천정환, 「서발턴은 쓸 수 있는가」, 『민족문화사연구』, 2011.12
- 최금숙·안소영, 「남북 주민의 가족관계와 북한주민의 상속권」, 『法學論集』Vol.16 No.2, 2011.
- 최연실, 「남북이산가족의 적응에 관한 질적 고찰: 남한 거주 이산가족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25-1, 2007.
- 최은범, 「다른 분단국의 이산가족사례: 중국-대만의 케이스」, 『국제법학회논총』39-1, 한국언론인회 編, 『(통일의 염원과)이산가족의 한』, 송산출판사, 1986.
- 한모니까, 「'수복지구'주민의 정체성 형성과정- '인민'에서 '주민'으로 '주민'에서 '국민'으로」, 『역사비평』2010.5.
- 한영진, 「유배되는 탈북자 가족들」, 『월간 북한』2011년 5월호.
- 주디스 버틀러(양효실 옮김), 『불확실한 삶 : 애도와 폭력의 권력들』,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8 (Judith Butler, Precarious life : the powers of mourning and violence, Verso, 2006)
- 주디스 버틀러(조현순 옮김), 『안티고네의 주장 : 삶과 죽음, 그 사이에 있는 친족 관계』, 東文選, 2005. (Judith Butler, Antigone's claim : kinship between life and death,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0)
- Linda Green, Living in a state of fear, in C.Nordstrom & A.Robben, eds., Fieldwork under fire: Contemporary studies of violence and survival,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통일에 가는 광명 천지¹⁾

丁鍾希

내 눈을 앗아간 분단시대

나는 두 눈이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을 보면서 살지 못한다. 그러나 눈은 없지만 세상의 흐름, 더욱이 우리 시대의 슬픈 모습에 대해서는 성한 사람 못지않게 가슴으로 느끼며 살아간다.

나에게서 두 눈을 앗아간 것은 분단된 조국이었다. 그리고 비정의 시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내가 살아온 선일곱의 세월은 그래서 감히 「비정한 시대」라고 자신할 수 있도록 나를 깨우쳐 준 과정이었다.

날 때부터 내가 앞을 못 보는 것은 물론 아니다. 내게도 두 눈을 가지고 살았던 21년²⁾이란 세월이 분명 있었다. 내가 눈을 잃은 것은 1951년이었다. 그러니 내가 눈을 뜨고 세상을 본 것은 일제 치하에서 허덕이며 살던 민족의 모습과 해방공간에서 아들·딸의 피를 수없이 머금던 비정한 조국의 산하였다. 반면 눈을 감은 채로도 더 똑똑히 본 것은 깊은 분단의식과 동족 사이의 증오·대립·외면, 그리고 말살이었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에 치여 살아왔던 우리 시대의 모든 피붙이들은 적어도 나의 이 말에 대해서만큼은 공감하리라고 믿는다.

「조국이 어서 빨리 통일되어 더 이상 남과 북의 동포에게 비극이 강요되지 않아야 한다.」

지주집안의 소첩 소생

우리나라에서 홍차 재배의 본고장으로 잘 알려진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내에서도 비포장 시골길을 따라 서남쪽을 약 한 시간 남짓 달려야 나타나는 곳이 회천면 봉강리이다.

나는 이곳에서 1933년에 태어났다. 당시 부친은 평야지대인 전남지방에서도 손꼽히는 지주였다. 나는 3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는데, 우리 남매는 모두 8명이었다. 나를 낳으신 어머니는 소첩이었고, 큰어머니(부친의 본처)밑에 5명의 형제가 또 있었다. 소첩 소생인 우리 3남매는 큰댁(부친이 사시던 집)으로부터 1백 여 미터 떨어진 집에서 자랐다. 큰댁에서는 우리 집을 「밖에 댁」이라고 불렀다. 부친은 내가 네 살 되던 해에 세상을 뜨셨기 때문에 나는 어린 시절을 대부분 홀어머님 슬하에서 보냈다. 이 무렵 큰댁은 나의 손위 조카(정해룡씨)가 살림을 도맡아하고 있었다. 조카라고는 하지만 나보다 20살 위였으므로 나에게서 그가 부친이나 다름없는 셈이었다.

1) 「월간중앙」 1990년 2월호(pp508-536)에 게재, 복간1주년 기념 7백만원 고료 논픽션 공모 우수작, 본인의 구술을 당시 월간 「말」의 정희상(집안의 조카) 기자가 기록함

2) 19년으로 수정, 본문에는 「월간중앙」의 글을 그대로 실었으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각주에서 기록함

당시 우리 집안은 지주 가문으로서의 철저한 유교적 전통과 일제 치하에서의 민족주의적 성향이 결합된 가풍을 지니고 있었다. 작은조카가 경성제국대학 예과를 거쳐 日本 동경제국대학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 항일운동에 관련돼 옥고를 치렀던 것도 이 무렵의 일이었다. 일제의 학도병징집이 기승을 부리던 시절에는 서울에서 그의 선배·후배·동료들이 여남은 명씩 몰려 내려와, 큰댁은 징용을 피하기 위한 은신처로 변하기도 했다.

그 뒤 작은조카는 자기 방식대로의 삶을 살면서 철저한 사회주의자가 되어 지금은 북한에서 고위 관료로 재직하고 있지만, 어쨌든 당시로서는 그가 가문에 민족주의적 성향을 불어넣는 이튼가 역할을 했다. 仁村 金性洙씨가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한다면서 도움을 호소했을 때 우리 집안에서 거액의 기부금을 희사했던 것도 그런 작은조카의 역할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작은집에서는 당시 광주농업학교에 재학 중이던 조카(정해두씨)가 광주학생사건을 주동한 혐의로 3년간³⁾ 옥살이를 겪는 등 집안에 풍파가 끊이지 않았다.

내가 자라온 집안의 분위기가 이러했기 때문에 나 또한 어릴 적부터 이런 영향을 깊게 받았다. 내가 면에서 하나 있던 소학교에 입학했던 때는 아홉 살 되던 1941년이었다. 그 해 일제의 침략적 광기가 극에 달해 제2차대전이 발발했다. 조선을 전시 총수탈체제로 몰아넣었던 일제의 당시 정책은 아무리 시골 벽지라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우리 면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그곳에 손꼽히는 지주 집안이었던 우리 집은 어느 집안보다 더욱 시달림을 당했다.

그래도 일본이 땀다는 생각은 감히 할 수 없었다.

「미국을 이겨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조선 사람은 모두 미국인에게 죽는다.」

당시 일제가 시도 때도 없이 떠들어대던 이 말이 어린 나의 머릿속에도 무슨 주문처럼 어느새 박혀버렸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런 무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던 우리와 같은 학생들은 춘하 추동을 막론하고 소위 「증산보국」이라는 미명아래 온갖 근로 작업에 동원됐다. 나 또한 그것이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로 알고 시키는 대로 했다. 해가 바뀌고 학년은 올라갔지만 지켜온 이런 작업을 언제 그만두게 될지 끝이 보이지 않았다. 내가 소학교 5학년 되던 해였다. 해방이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몰랐어도 우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기쁜 일이었다.

친지들이 주도한 자치 행정

45년 8월 16일. 해방 바로 다음날 목격했던 일들은 더욱 나를 들뜨게 했다.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수백 명의 면민들이 「일본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에 넘쳐 면소재지로 모여 들었던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해방을 축하하는 무슨 군중대회가 아니었나 싶다. 열세 살이 되도록 보지 못했던 태극기를 내가 처음 본 것은 그 때였다. 농악을 울리며 대창을 들고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들의 함성이 먼 일대를 진동시켰다. 정확히 따져보진 않았지만 아마 먼 단위로서는 전국 최초의 해방 기념대회가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3) 3년 6개월

아무튼 면사무소 앞에서 그 집회를 마친 군중들은 그 길로 면사무소로 쳐들어가 그 안의 일본 국조를 모시고 있다는 「신사」부터 불태웠다. 어린 내가 보기에 그 날 면민들에게는 신명나는 표정이 역력했다.

이튿날, 일본 순사들을 가득 태운 한 대의 트럭이 우리 마을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들었다. 뭔가 다급하고 심상찮은 형세라고 느낀 마을 주민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재빨리 뒷산으로 올라가 몸부터 숨겼다. 목숨이라도 부지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일제하에서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난 후 日警 대표인 듯한 서너 사람이 산으로 찾아 왔다. 어제의 군중대회를 주도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지목한 사람은 바로 내 친형(정종팔씨)과 큰댁의 두 조카(정해룡·정해진씨), 그리고 작은집 조카(정해두씨)였다.

하나같이 나의 일가친척들이었다. 과거의 예로 보아 무슨 해를 입힐지 몰라 형과 조카들은 안 만나겠다고 일단 버텼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의 태도가 전과는 매우 달랐다. 일경은 다급한 표정으로 「경찰병력을 철수시킬 테니 꼭 좀 만나 달라.」는 것이었다. 그래도 안심하지 못하고 얼마간을 망설이다가 「죽일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급조된 대표끼리의 만남이 이뤄질 수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일경이 우리 마을을 찾은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본국 철수와 관련한 신변 안전 확보가 목적이었다. 전쟁에 져으니가 家率을 데리고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급선무였을 것이다. 여수 방면으로 나가 배를 타려면 도중에 불의의 사고를 겪을지도 모르니 우리 면을 끼고 있는 보성만을 통해 곧장 나가겠다는 얘기였다. 이어 일경들은 철수가 끝날 때까지 우려되는 면민들의 습격을 자제시켜 달라는 부탁도 잊지 않았다.

꽤히 승낙해주었다. 일본인들이 빠져나갈 준비를 하는 동안 면에는 치안대와 건국준비위원회가 속속 결성됐다. 그리고 그해 8월 말부터는 이들 조직이 면의 행정권과 치안권을 완전히 접수했다. 당시 면 건준위원장은 큰댁 큰조카가, 청년치안대장은 내 친형님이 맡았다.

물론 이와 같은 자치기구들은 보성군 단위기구들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움직였다. 그리고 이들 기구가 면내에서 최우선 순위로 벌인 사업은 안정된 질서의 유지와 함께 면민들을 명실공히 독립국가의 국민들로서 바로 서게끔 계몽·선전활동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 일환으로 건준 문화부는 9월 초순부터 해방과 함께 닫혔던 소학교의 문을 열고 빈부격차와 관계없이 모든 면내 아동들을 불러 모아 교육을 시작했다. 나도 이 때 일제하에서는 전혀 배우지 못했던 우리 말과 우리글을 익혔다.

또한 치안대와 건준은 일제의 경직된 전시 총수탈체제 아래 말살된 민족문화의 복원에도 힘 쏟았다. 그리하여 우리 면에서는 예로부터 내려오던 전통 민속인 씨름판 「난장」을 트기에 이르렀다. 당시 이런 모습은 면민이 자치적으로 모든 일을 잘 진행해갈 수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기도 했다.

우리 마을에 올린 최초의 총성

그렇게 먼 행정이 유지되는 가운데 9월 중·하순에 접어들면서 중앙에서의 시국과 관련한 소문들이 무성하게 번졌다. 그것들은 주로 「미군이 들어왔다」 「이승만 박사와 김구 주석이 곧 입국한다」 등의 내용이었다.

9월 말, 10월 초순이 되자 소문들은 하나씩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 면에 美軍이 들어온 것이다. 미군들은 그동안 면민들이 자치적으로 꾸려오던 기구들일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계획대로 면내 행정·치안 등을 접수했다. 우리 면에는 일제 때의 관공리들이 다시 등장했고, 건준·청년위 멤버들은 권한을 박탈당하고 모조리 몰려났다.

이어서 10월 하순이 되면서부터는 앞서의 건준·청년위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새로이 결성된 공산당·공산주의 청년동맹·부녀동맹·농민동맹으로 활동 조직을 옮겼다. 따라서 이들 단체의 활동과 군정청 경찰 사이의 마찰은 이때부터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그해 말 모스크바 3상회의 소식이 전해졌고 이를 기화로 면민들은 미군 진주 후 처음으로 대대적 집회를 가졌다. 수천 명이 모여 반탁시위를 벌인 뒤 시위대는 이를 체지하는 군정청 경찰들의 저지선을 뚫고 주재소로 쳐들어가 「미군정경찰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집기를 부쳤다.

이 사건은 우리 면내 조직들이 타지역보다 비교적 빨리 군정의 탄압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됐다. 사건을 주도한 주요 멤버들이 우리 집안사람들이었으므로 보성경찰서에서 곧바로 우리 마을을 습격한 것이다. 46년 1월초 수십 명의 경찰과 무장미군이 우리 마을에 들이닥쳤다.

당시 나는 우리 집 사립문에서 고개를 내밀고 진주한 군·경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골목을 향해 미군이 공포를 쏘았다. 그것은 해방 후 우리 부락에서 올린 최초의 총성이었다. 군·경은 곧바로 집집마다 수색을 했고 젊은 사람들은 모조리 결박당한 채 끌려갔다. 미처 피신하지 못했던 작은집 둘째조카(정해종씨)가 이 때 체포돼 「미군정 포고령 2호」 위반죄로 목포 형무소에 수감됐다.

당시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한마디로 일제에 대한 반항심이 면민들의 좌익화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었다. 그것은 우리 면 어디에서나 일반적인 현상이었는데 이는 각 자연부락 단위로 농민·청년·여성단체에 대한 주민의 참여율이 대단히 높았다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즉 우리 면에서는 「反日=좌익화」라는 등식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던 것이다.

특히 내가 영향을 크게 받은 집안의 친지들이 대개 좌익계 유력인사들이었는데 그들은 면민들의 단결력을 끌어내는 데 있어 피부에 와 닿는 이슈들을 내놓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도력을 손쉽게 장악했었다. 그 때 내걸었던 주요 정책강령은 면민들의 궁핍을 타개할 것을 목표로 삼는 「토지 무상몰수 무상분배」, 「소작료 3·7제」, 「토지는 밭가는 농민에게」 등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뿐만 아니라 미군정 하의 행정기관과 경찰은 과거 일제 때 악질적으로 친일활동을 하여 면민

들로부터 지탄받던 인사들을 재 등용해서 다시금 면민들을 휘어잡으려 한다고 인식돼 반발이 크게 일어났다. 자연히 좌익 활동을 하던 사람들은 면민들의 동경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였다.

어수선한 시국으로 중학진학 좌절

어쨌든 당시 미군정 경찰지서 습격사건과 관련, 나의 형님이 수배됨으로써 우리 가족은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게 됐다. 내가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경찰들이 매일같이 우리 집을 찾아와서 형의 소재를 대라고 다그치곤 했다. 때로는 가족들을 끌고 가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했고, 잠복에 지친 경찰들로부터 뺨을 맞기도 했다. 그런 환경은 어린 나에게도 미군정경찰에 대한 반발심을 깊게 심어 주었다. 형님은 당시 지서습격사건 외에도 보성군 남로당 결성 혐의가 추가돼 거물급으로 수배된 상태였다.

46년 10월에 접어들면서 추수기를 맞아 우리 군내에도 대규모 「인민항쟁」이 일어났다. 그때는 그 봉기를 「인민항쟁」이라고 불렀다. 군내에서 최초의 유혈사태가 발생했던 사건이 바로 10월 인민항쟁이었다.

형님은 인민항쟁 주모자로 몰렸고 그 기간에 체포돼 보성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다. 이 무렵은 나의 중학교 진학문제가 걸친 때이기도 했다. 집안의 사정이 그렇게 되니 자연히 나의 진학 전망은 어두울 수밖에 없었다. 당시 나는 집에서 20km 떨어진 보성경찰서까지 형님 면회를 다니느라 분주했다.

육중의 형님은 한사코 배워야 한다며 나에게 광주西중학교에 시험을 치라고 강력히 권했다. 그 권유를 받아들여 나는 광주서중에 원서를 내고 4차례에 걸친 까다로운 시험절차를 통과해 합격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입학금조차 마련할 수 없어 결국 학업을 포기해야만 했다. 형님 옥바라지만으로도 버거울 만큼 家勢가 기울어졌기 때문이었다.

그 뒤 나는 몇 달간을 집에 틀어박혀 우울한 나날을 보냈다. 가끔 형님 면회를 가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과자」의 어린 동생에 대한 감시의 눈길은 끊임 없이 있었다. 경찰은 당시 열여섯살인 나에게까지 불순한 심부름을 한다고 의심하며 틈만 나면 불러내 조사를 했던 것이다.

경찰의 출입이 더욱 극성스러워졌던 것은 48년 單政수립을 위한 5·10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에서 일어난 4·3사건과도 관련이 있는 듯 했다. 실제로 4·3사건이 터졌다는 소문이 나돈 이후에는 우리 부락에 대한 경찰의 단속과 감시가 부쩍 강화됐고 부락민들을 대하는 경찰의 태도도 전에 없이 살벌했다.

마을 뒷산으로 사라진 여순 반군

그해 4월을 넘기지 못하고 일은 기어이 터지고야 말았다. 4월말 경찰의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면내 곳곳에서 단정반대 시위가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때부터 경찰의 대응방식은 예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경찰은 시위 혐의자들에 대해 즉각적인 「토벌전」으로 나온 것이다.

우리 부락에서는 내 작은집 조카들이 경찰의 지목을 받게 됐고 곧바로 작은 집 가옥이 불태워졌다. 이어서 당시 활동적이던 마을 젊은이 배경칠씨가 경찰이 휘두른 몽둥이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아랫마을 청년 두 명(박태룡, 소태영씨)은 산으로 끌려가 총살당했다. 삼시간에 부락은 공포분위기에 휩싸였고 민심은 흉흉해져 갔다.

「안되겠구나. 집을 잠시 떠나 있거라.」

내 어머니께서는 나의 신변이 위협하다고 판단하셨는지 하루는 나를 불러 그렇게 말씀하셨다. 형님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로 인해 예상되는 위협은 피하는 게 현명했다. 하지만 그 때는 移種때였다. 흠어머님을 남겨두고 혼자 사지를 벗어난다는 게 더구나 이 바쁜 시기에 그런 결심을 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다.

「어무니 혼자 두고는 안 갈라요.」

「내 걱정은 말그라. 나야 여그 있어 봤자 고생하면 되제만, 젊은이들은 다 죽는 판 아니냐, 니가 있으면 에미도 더 고생이다. 가그라.」

「.....」

어머니의 말씀은 간곡했다. 그래서 어느 날 신새벽 나는 홀연히 집을 나서 인천으로 갔다. 인천에는 항만노역거리가 많아 밥벌이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처음 맞는 객지생활은 고달프기 그지없었으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라서 그런 고달픔쯤은 별 문제가 아니었다. 몇 달이 흘렀다. 고향의 가족 안부가 갈수록 궁금했다. 추수 때가 됐으니 일손도 한창 아쉬울 것이었다. 이런 저런 생각 끝에 그 해 가을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무사하셨지만 작은집 조카들이 줄줄이 체포·구속됐다는 것이었다. 내가 형님과 조카들의 옥바라지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루는 집에서 22킬로미터 떨어진 장흥형무소로 작은집 조카 면회를 갔다. 약간의 옷과 사식, 그리고 藥을 넣어주고 집안의 안부도 전했다.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었다. 집에까지 오려면 크고 작은 재를 서너 번은 넘어야 했다. 그 중 제일 높은 재가 웅치면 뒤에 자리한 웅치재다.

그곳을 넘는데 이미 어둠이 깔린 가운데 저 아래 마을에 웬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며 수많은 사람들을 비춰주고 있었다. 궁금하던 차에 단숨에 달려가 보았다.

「여러분, 여수에서 14연대가 반란을 일으켜 도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곧 이곳으로 온답니다.」

젊은 사람 한 명이 모여든 주민들 앞에서 여수·순천 주둔 군대의 반란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반란은 주민들에게 「진짜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내용을 강조했다. 이 자리는 14연대의 반란을 지지하는 웅치면민대회였던 것이다.

『그러면 우리 면에는 이미 반란군들이 도착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지체하지 않고 집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밤을 세워 집에 와 보니 부락에서는 아직 그 소식을 모르고 있는 듯 했다. 그날 낮이 돼서야 반란군이 보성읍까지 장악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오후가 되자 마을 앞에서는 요란한 쾅파리 소리가 들리고 어디서 나왔는지 긴 막대 끝에 수많은 깃발들이 펄럭이고 있었다. 웅치면보다 하루 늦은 「14연대 환영 면민대회」였던 셈이다. 그러나 끝내 14연대는 우리 면까지 오지 않았다. 술렁대던 분위기 속에서 2,3일이 흘렀다. 이번에는 정반대의 소문이 다시 나돌았다.

『진압군이 14연대를 격퇴하고 우리 면으로 돌아온다』 대강 이런 내용이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추수일로 고단한 나는 점심을 든 후 큰댁 사랑채에서 깜박 잠이 들었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려 단잠을 깨고 일어나 보니 스무 명은 족히 될 것 같은 군인들이 뒷마루와 마당에 가득 차 있었다.

『학생인가?』

『아니오』

『어쨌든 잠 좀 자야겠어. 미안하지만 좀 비켜줘』

토벌대에 쫓겨 산으로 후퇴한 14연대 소속 반란 군인들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자고난 뒤 여러 집에서 밥을 시켜먹고는 다시 유유히 뒷산으로 사라졌다.

토벌대와 반란군의 각축장

이 소식은 곧바로 면소재지에 주둔한 토벌대에 들어갔다. 다음날부터 토벌대는 낮이면 우리 마을에 상주했고 해가 저야 돌아갔다. 토벌군은 마을 사람들에게 「만약 반란군에게 밥을 해주거나 연락을 부탁받아 수락한 자는 부락민이 보는 앞에서 일가족을 총살시켜버리겠다」고 경고했다.

반란 14연대 잔류병들은 또 그들대로 밤이면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부락에 내려와 식사제공을 강요했다. 마을은 삼시간에 군경 토벌대와 반란군 사이의 상반된 요구로 인해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버렸다. 하루는 토벌대가 험악한 모습으로 마을에 들어와 부락민 전체를 앞 논으로 모이도록 했다.

『이 중에서 지난 밤 반란군에게 밥해준 사람 나와』

『.....』

『야! 너 이×× 이리 나와』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제 죽었구나」 하는 느낌과 함께 와락 공포감이 밀려들었다. 순간 토벌대원들의 몽둥이세례가 퍼부어졌다. 그날 나는 죽지 않을 만큼 흠뻑 맞았다. 토벌

대로서는 마을 사람들에 대한 본때를 보이려던 것 같았다.

그리고 다음날 밤. 어제 맞은 부위가 쭈셔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문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문을 열어보니 서너 명의 반란군들이 내려온 것이었다.

『당신들한테 밥해 주면 우린 죽소』

죄 없는 아들이 끔찍하게 당하고 난 후라 우리 어머니는 그 무섭증을 참지 못하고 반란군들에게 그냥 가라고 하소연했다.

『밥 안 해주면 우리도 당신들을 죽일 수 있는 것 아니오?』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계속 식사 제공을 강요했고 공포에 못이긴 어머니는 그들의 요구대로 밥을 해 줄 수밖에 없었다.

당시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부락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였다. 공포의 날은 그치질 않았다. 마을 젊은이들은 모조리 지서에 끌려가 20여일씩 감금된 채 죽도록 매를 맞고 풀려났다.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다.

당시 우리 부락 구장(지금의 이장)이 정종연씨였는데, 토벌대는 부락민 동태를 확실하게 보고 하지 못한다고 수상한 눈총을 보내고 있었다. 하루는 밤늦은 시간에 반란군이 구장집으로 찾아왔다.

『밥해주시오』

『제발 그냥 돌아가시오. 내일 나는 죽습니다.』

『밥해주지 않으면 오늘밤 우리가 죽이겠소.』

공포에 못 이겨 식사 제공을 수락하자마자 그들은 구장을 덮쳐 오랏줄로 묶고 그 길로 지서로 데려갔다. 토벌대가 반란군으로 가장해서 들어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토벌대는 다시 부락민을 한 명도 빠짐없이 마을 앞에 모이게 했다. 이어서 회천면 경찰지서장 천화보씨의 연설이 시작되었다.

『반란군을 끼고 있는 동네는 불순한 동네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불순한 사람들이다. 자! 지금부터 전부 매를 때리겠다. 이것은 내가 때리는 매가 아니라 삼천만 국민이 너희를 때리는 매다. 매 끝에 태극기를 달았다.』

이 날은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부락민 전체가 무수히 구타당했다. 이어서 토벌대는 집집마다 돌며 가축을 비롯하여 값나갈 만한 물건을 싹 챙겨서 마을을 나갔다. 국가를 위해 고생하는 그들에게 경제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바로 애국이라는 말을 남기고서...

시작된 살육

우리 마을은 뒤로 7백m 고지의 일림산을 끼고 있었는데, 그 산줄기는 東으로 이어져 보성·벌교에 이른다. 남해안치고는 꽤 깊은 산세라서 토벌대에 쫓기는 반란군들이 근거지로 삼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이러한 지형조건은 토벌대와 반란군 사이의 싸움을 지루하게 만들었

다. 따라서 우리 부락과 같이 그 산자락에 위치한 마을들의 수난은 그칠 날이 없었다.

48년 겨울, 그 해 겨울은 유별나게 추웠다. 토벌대와 반란군 사이에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하며 살던 우리 마을 주민들의 물결은 맑이 아니었다. 반쯤 혼이 나간 상태라고 해야 옳으리라.

겨울이라고 그런 수난이 그칠 리 만무했다. 면지서에서 보성 본서까지의 거리가 약 18킬로미터 쯤 되는데 가운데 험준한 산이 첩첩 가로놓여 있었다. 그래서 토벌대는 주요 통신수단으로 나무들에 전화선을 걸쳐두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전화선이 밤이면 반란군에 의해 잘려 나가는 일이 잦았다. 토벌대는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면내의 모든 부락에 대해 의무적으로 한집에 한명씩 전화선을 경비할 「야경꾼」을 보내도록 통지해왔다.

한명이 사는 집이건 열가족이 있는 집이건 반드시 가구당 1인이 나가야 했다. 그러다 보니 야경꾼들이 한 곳에 모일 때 보면 대여섯살 된 어린애로부터 6순 노파까지 있었다. 불려나온 목적을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것도 다 죽지 않고자 바등대는 주민들의 선택이었기에 차라리 눈물겨운 장면이었다.

거기다 날씨마저 추운 겨울이었으니 배정된 산속의 어느 지역에서 밤을 지새려면 방한준비까지 해야 했다. 해질 무렵이면 부락마다 남부여대로 장작더미를 가지고 행렬을 지어 나서는 게 그해 겨울의 일상사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몇 명의 반란군이 토벌대에 생포됐다는 소문이 돌더니 토벌대를 태운 트럭 한 대가 우리 마을을 급습했다. 차에서 내린 군인들은 부락민을 전부 불러모았다. 그리고는 주민 중 나와 어릴 때부터 단적으로 지내던 백형춘이라는 사람을 불러내더니 그 자리에서 총살시켜 버렸다. 체포된 반란군에게 「밥해준 사람을 대라」고 족쳤더니 「백형춘」이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것이었다. 사실 그 때 반란군에게 밥 한 번 안 해준 집은 있을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생포된 반란군이 나름대로의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집에서 계속 밥을 뒀다고 말했던 듯하다.

어쨌든 부락민은 다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에 휩싸였다. 다음날은 토벌대가 회령부락(우리 마을에서 1킬로미터 거리)에 인근 주민들을 모아놓고 면내에서 반란군에게 밥해준 혐의자 8명(남7, 여1)을 잡아와 또 총살시켰다.

민심은 극도로 흉흉해졌다. 내 형이 교도소에 있다는 이유로 이때부터 부락민들은 불이익을 받을까봐 서서히 우리 집안사람들을 꺼려하기 시작했다. 나는 도저히 마을에 붙어 있을 수 없었다. 나는 그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강진군에 있는 외가로 몸을 숨겨야 했다.

서울에서 좌익계 거물과 만나다

외가에서 몇 달을 보낸 후 봄이 되어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어무니, 여그 계속 있다가는 모두 살아남지 못하것소. 서울로 뜰시다.』

어머니를 설득한 끝에 그 해 초여름 移種을 마치고 가족이 서울로 옮기게 됐다. 지금의 이화여대 앞에 자리한 허름한 집에 세를 들었다.

안정된 생계의 터전이 없어 고통 받긴 했으나 고향집에서의 죽음에 대한 공포에 비하면 한결 마음 가벼운 생활이었다. 서울에 자리 잡은 뒤 나는 큰덕 들쨌조카(정해진씨)를 수소문 끝에 만날 수 있었다.

『여순사건으로 고향이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 살 수가 없어 어무니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조카이기는 했지만 들쨌 역시 나보다 열일곱 살이나 위였다.

『판국이 어려워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 시기를 굳세게 견뎌 나가세요. 곧 좋은 날이 오겠지요. 모쪼록 서울에 오셨으니 얼마 안 되는 친척끼리 도우며 삼시다. 아재도 틈틈이 공부를 해야지요.』

당시 들쨌 조카는 지하공산당원으로 서울에서도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는 보성에서 유일하게 경성제국대학을 거쳐 동경제국대학 대학원에까지 유학한, 말하자면 보성이 낳은 「인물」이었다. 어린 시절 이런 조카를 가까이서 지켜본 나로서는 일종의 존경심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엄격한 생활태도를 지닌 데다 해박한 사람이었다. 아무튼 서울에서 조카와 만난 이래 나는 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우리 집안이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은 역사가 변화되는 데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한 현상에 불과합니다. 이를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혁명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사상적 의지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조카의 충고 속에 나는 혁명에 관한 기본 이론들을 공부했고, 앞으로의 삶도 「계급해방」이라는 역사적 요청에 따라 걸어갈 것을 결심했다. 일제 이래부터 겪어온 수난의 민족사가 결국은 어떤 하나의 길로 접어들기 위해 필요했던 「진통」의 과정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50년 2월의 어느 날,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느닷없이 경찰이 들이닥쳤다. 그리고는 다짜고 짜로 나를 끌고 마포경찰서로 데려갔다.

『정해진이와 어떻게 돼?』

『큰덕 조카입니다.』

『이 xx! 누가 그걸 묻는 거야? 무슨 지시를 받고 어떤 일을 했어?』

『지시를 받다니요? 서울에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라 자주 만나는 것 외에는...』

말을 맺기도 전에 무수한 구타가 이어졌다. 경찰은 좌익활동혐의로 들쨌조카를 체포한 뒤, 친척인 나의 이름을 듣고는 내게서도 뭔가 끄집어낼 것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모양이었다.

결국 들쨌조카는 서대문형무소로 구속 송치됐고 나는 조사 끝에 무혐의로 풀려나왔다. 50년 4월에 어머니와 나는 이종시기에 맞춰 고향으로 다시 내려갔다.

큰조카의 국회의원 낙선

50년의 봄 고향을 다시 찾았을 때는 얼마 안 되는 우리 집 소유 땅땀기에 모나 심고 올라가 야지 하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집에 내려오니 뜻밖의 일거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큰댁 큰조카가 5월에 있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이었다. 집안의 인정상 만사 제치고 선거운동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었다.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큰조카는 손발이 뉘얼 만한 젊은 친척을 죄다 감옥에 두고 있었으므로 초장부터 고전하는 형세였다. 제반 사정을 알아본 나는 인근 부락의 학교 동창들을 찾아나섰다. 자기 면에서 국회의원 후보가 나선다 하면 누구든지 반기고 적극 도우려 함직하건만 큰댁 조카에게는 그런 지지자가 없었다.

대다수 면민들은 속마음이야 어쨌든지 간에 「빨갱이 후보」라고 몰아대며 「누구든 그의 선거운동을 도무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경찰의 위협 아래 살고 있었던 것이다.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몇몇 친구들이 선뜻 나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벽보를 붙이고 인사장을 돌리기 시작한 지 사흘쯤 됐을까.

「천포리 쪽을 돌던 친구들이 다 잡혀갔다」

「누가 합법적인 선거 운동을 방해해?」

「야, 지금 순진하게 범 따질 때냐? 일단 피하자.」

우리 선거운동 팀을 면지서에서 체포하러 나선 것이다. 다음날로 나는 지서에 붙들려갔다.

「빨갱이 선거운동을 하는 놈은 다 죽여 버리겠다. 일단 한번 돌려보내겠지만 다시 이런 짓 하면 죽을 줄 알아라.」

무수한 구타를 당한 뒤 「한번만 봐 준다」는 은전(?)을 받고 풀려났다. 그리고 선거 임박해 서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례적으로 보성경찰서장(이봉화씨)이 각 마을을 순회했다.

「누가 누구에게 표를 찍었는지 다 압니다. 정해룡후보에게 표를 찍은 사람은 나중에 조사해서 엄벌에 처할 것이요.」

결과는 낙선이였다. 이래저래 집안은 낙심천만의 분위기였다. 모는 심어야 했다. 6월 한 달은 모내기 일로 바쁜 나날이었다.

보도연맹 사건

그 때 동네에는 젊은 사람이 드물었다. 난리나 다름없었던 해방정국에서 젊은이들이 부락에 남아 있을 여건이 안됐음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당시 반란군을 지지하고 동네 뒷산에서 살다 나중에 자수하여 풀려난 부락 친구(임종만씨)가 내방에서 같이 기거하고 있었다. 모내기철이라 새벽같이 일어나 둘이서 동네 일손이 됐던 것이다.

6월26일. 전날의 모내기로 고단한 탓이었는지 이날은 해가 중천에 오르도록 친구와 잠에 떨어

져 있었다. 어느 때쯤이었는지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일어나 문을 열어보니 같이 있던 친구 임종만의 어머니께서 가쁜 숨을 내쉬며 마루에 걸터앉아 아들을 부르는 것이었다.

「종만아, 얼렁 지서에 가봐라. 아침에 순경들이 너 좀 만나자고 집에까지 찾아왔드라.」

「뭘 일이라합디요?」

「이번에 지서로 나오른 니한테 붙은 보도연맹인가 뭔가 하는 그 딱지 아조 띠어준다 하드라.」

그 당시 소위 「국민보도연맹」이라는 것이 있었다. 과거에 좌익활동을 했거나 좌익계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체포된 후 전향하면 살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가입시켰던 단체가 그것이었다. 우리 마을에서는 수십 명이 이 단체에 가입돼 있었고, 질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우리 가족도 내 형님이 형무소에 있었던 관계로 보도연맹 가입대상이었다. 말하자면 과거의 좌익활동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이 단체를 만들어 앞으로 탈 없이 사는지 감시하기 위한 기구였던 것이다.

아무튼 26일 오전에 친구 임종만은 기쁜 얼굴로 면사무소로 향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다음날 소식을 들으니 지서에서 수십 명의 보련 가입자들이 총살당했다는 것이었다. 내 집에서 나간 임종만이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난 것이다. 그리고 날마다 보련 대상자들을 찾는 순경들의 출입이 늘어났다. 며칠 뒤 우리 부락에서 정영수씨, 정민수씨, 김순태씨가 경찰에 붙잡혀가 사살됐다. 이때까지도 우리 면에서는 6·25가 일어난 사실을 가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보련 대상자는 다 죽인다」는 소문이 삼시간에 퍼졌다. 나는 다시 예기치 못한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했다. 대상자를 급수별로 분류해 차근차근 데려가 어디서 죽이는지도 모르게 총살시켜버리는 나날이 계속됐다. 내 경우 급수가 낮았는지 아직은 살아 있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를 일이었다. 일단 피해야 했다. 뒷산으로 숨었다. 밤이면 가끔 집으로 몰래 내려와 끼니를 때웠다.

7월초가 되니까 「38선이 터졌다」는 소문이 짝 퍼졌다. 반도의 최남단에서 살고 있는 나로서는 전세가 어찌되었는지 알 수도 없었다. 보련 가입자들을 찾는 경찰들의 행동에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다는 말을 듣고 막연히 「공산군이 깊숙이 내려왔나보다.」 하는 생각이 들 따름이었다.

천포리(같은 면)에서는 경찰들이 어찌나 다급했던지 오봉사 지서의 분서 유치장에 사람을 꼭 채워놓고는 그대로 총을 난사한 뒤 어디론지 빠져 나갔다는 소식도 들렸다. 6월26일부터 7월25일 사이에 우리 면에서 죽은 보도연맹 가입자들만도 수백에 이르렀다.

7월25일. 경찰과 행정공무원들이 가족을 데리고 이미 빠져나간 가운데 우리 면에 인민군이 들어닥쳤다.

민청 활동, 그리고 입산

인민군이 진주하자 일단 급한 목숨은 건졌다고 느끼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진주한 인민군은 새로운 행정체계와 치안체계를 서둘러 갖추고, 주력군은 여수 방면으로 빠진 가운데 「해방」을 선포했다. 8월초 어느 날 아침, 면당에서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정종희씨지요?」

「예」

「이제 해방됐습니다. 조국이 완전히 해방될 날도 며칠 안 남았소. 새로운 조국을 건설하는데 일꾼이 돼 주셔야겠소.」

나는 그날로 면당에 나갔다. 이제 나라는 완전히 인민군 치하에 들어간 것으로 알았고, 면민들도 바뀐 「국가질서」 속에 적응하는 편이었던 게 당시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나는 이튿날부터 면 민청에 소속돼 일을 보았다. 주로 치안유지와 면내 사정에 관한 서류취급이 임무였다.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기까지의 까다로운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당원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므로 면당의 체계들이 제대로 갖춰지기는 힘들었다. 많은 물자들이 낙동강전선으로 보급돼야 했고 면민들로 하여금 이 전쟁의 「대의」를 인식케 해야 했다. 주된 활동은 자연히 그런 것들과 관련될 수밖에 없었다.

달포 남짓 흐른 9월 하순 어느 날.

「정종희씨. 미제가 인천방면으로 치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낙동강싸움은 어떻게 되는 것이요.」

미처 예기치 못했던 소식에 나는 아연해했다. 면당은 일순 술렁이는 분위기로 뒤바뀌었다. 금방 끝나리라던 전쟁이 미궁으로 빠져드는 느낌이었다. 불안한 나날이 며칠 지속됐다.

「서울이 미제에게 떨어졌소. 일단 우리도 대오를 정비해야겠소. 상부지시요.」

결국 더 버티기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당간부의 전언이었다. 곧바로 퇴각할 준비에 부산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어려운 지경에 처할수록 규율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왔다.

10월 초, 면 일대의 산악지역으로 당과 제조직들을 옮기기로 결정됐다.

「어무니. 잠시 떠났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왜 어디로 갈라고 그러는 거냐.」

「전세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안전한 지대로 피하는 겁니다.」

퇴각명령이 있던 날 아침, 나는 어머니께 큰절을 올리고 집을 나섰다. 군경이 들어올 경우 어머니의 안전이 걱정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의 활동 경력으로 보아 그때까지 집에 머무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리고 당시 조국이 처한 상황에 대한 내 인식의 깊이로서는 산으로 후퇴해 동료들과 같이 생사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생각이기도 했다. 산이 단풍으로 서서히 물들 무렵에 입산은 시작됐다.

참혹한 빨치산 생활

우리가 처음 들어간 산은 일림산이었다. 앞으로 보성만을 끼고 득량도, 소록도 등 섬들이 내려다보이는 곳으로, 산세는 장흥군 일대에서 우리 면을 거쳐 동으로 벌교까지 이어져 있는 곳이다.

대원들은 면당조직을 중심으로 민청·농민동맹·여성동맹 등 외곽단체에 속한 약 50여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군경이 곧 추격할 것이므로 산악에서는 어떻게든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다. 따라서 입산 후의 주된 일과는 항상 행군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 일정한 거점이란 것은 없었고, 이 계곡 저 계곡을 따라 안전지대를 찾아 헤맨 것이었다.

산에서는 행동에 편리하게끔 조직재정비가 이뤄졌다. 크게 군사부와 정치부로 나뉘었는데, 군사부는 대원들을 호위하는 일종의 「무장 전투조직」이었고, 정치부는 정치사상교양과 규율 등을 관장하는 조직이었다. 나는 산에서 정치부에 배속됨과 함께 민청위원장직을 맡았다.

본격적인 산악활동은 하나부터 열까지가 생소한 것들뿐이었다. 10월 초에 입산했으므로 갈수록 추위를 견디기가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옷은 입을 그대로 다 해질 때까지 벗을 수가 없었고, 군경의 기습에 대비, 고도로 제한된 활동을 해야 하니 세수나 목욕이라는 것도 제대로 하기 힘들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면에 진주한 군경의 수색활동이 본격화됐다. 군경의 수색은 대개 낮에 이뤄졌다. 우세한 인력과 화력으로 추격해오기 때문에 낮에는 항상 안전하게 숨어 있어야 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또 더 안전한 지대를 찾아 이동이 시작됐다. 하룻밤에 수십 킬로미터씩 걷는 경우도 있었다.

토벌대의 수색활동이 바짝 심해지면서부터는 우리의 규율도 보다 엄격하게 조정됐고, 긴장감 또한 더해갔다. 능선을 따라 이동하는 일은 완전히 금기시 됐다. 식사도 하루에 한번만 해야 했다. 식사시간은 해질 무렵으로 산그늘이 골자기를 뒤덮을 때로 맞춰졌다. 그것은 바로 이때가 먼 곳에서 산을 보면 연기가 안 보이는 시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령 군경이 우리의 위치를 파악한다손 치더라도 올라와 작전을 전개하고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은 시각이라서 스스로 추격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때였기 때문이기도 했다.

11월로 접어들면서 고통은 점점 심해졌다. 그해 따라 유난히 늦가을 비가 잦았던 것이다. 흠뻑 젖은 상태로 행군이 개시되면 모두들 한기를 못 이겨 심한 기침을 해대곤 했다. 식량조달이 안 돼 굶기도 다반사였다. 모든 생존조건은 인간사회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행군 도중 어느 대원이 「도토리를 물고 달아나는 저 다람쥐가 부럽네.」라고 넋두리를 했을 때 모두가 침울한 표정이었다.

날이 갈수록 군경의 포위망은 좁혀졌다. 처음에는 습격을 피해 잘 움직였지만 11월이 되면서부터 포위망에 걸려들어 접전이 잦아졌다. 그러나 군경도 전면적인 공격을 가해오기에는 산세가 험해 애로가 많았고, 우리들은 산에 밝은 이점을 이용해 위기를 모면하곤 했다.

군경의 작전은 주로 동틀 무렵에 전개됐다. 전날 밤 우리가 쉬는 곳을 파악한 군경은 새벽에 감쪽같이 그 일대를 포위하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다 해가 솟을 무렵 공격을 퍼부었다. 우리는 전투다운 전투를 하지 못하고 안전지대를 찾아 혼비백산 달아나기만 했다. 사상자 처리는 이런 경우 엄두도 내지 못했다.

대원들의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살을 에는 추위를 맞이했다. 이제 군경의 수색보다 추위가 더 무서웠다. 눈이 쌓일 때는 발자국을 남기기 때문에 움직이기조차 어려웠다. 땅이 푹푹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던 어느 날, 한 대원이 약속된 이동장소에 먼저 도착해 누워 있는 것이 보였다.

「어이, 모두 왔어. 일어나」

「.....」

말이 없었다. 그는 추위를 못이긴 채 잠들었다가 얼어 죽은 것이다. 남은 사람들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초인적인 정신력을 가져야 했다.

춘기공세를 넘기고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날씨가 좀 풀리기 시작했다. 51년 봄, 군경의 춘기공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이었다.

우리는 이제 고도로 긴장된 상태에서 이 봄을 넘겨야 했다. 군경은 녹음이 짙어지기 전에 토벌을 완수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수개월간의 경험을 통해 군경은 우리의 귀신같은 출몰도 손바닥 안에 놓고 보는 듯했다. 안전하다고 여기고 이동해보면 이미 군경이 진을 치고 있는 일이 잦았던 것이다. 그럴 때면 다시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기 바빴다. 예전과는 달리 추격해오는 시각도 밤낮 구별이 없어졌다. 하루는 일림산 어느 골짜기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휘황한 조명탄의 불꽃이 하늘에 오르더니 온 골짜기가 대낮같이 환해졌다.

「기습이다.」

누군가의 고함이 들리는 순간 골짜기 양쪽 언덕에서 기관총 소리가 쿵을 뿜듯 했다. 잠결에 놀란 대원들은 부리나케 골짜기 위쪽을 향해 달렸다. 조명탄 부스러기가 얼굴을 때리는지 따끔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런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해 춘기공세가 끝나고 남은 대원수를 세어보니 입산 때의 절반도 안 되는 20명에 불과했다. 참담한 마음이 앞섰다. 하지만 녹음이 우거져가니 비교적 안전한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런대로 한숨을 돌렸다.

여름철은 비교적 수월했다. 우선 식량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된다는 것이 큰 위안이었다. 부락 근처의 전답에서 수거한 곡식과 산열매로 버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군경의 공세도 뜸해졌다.

이 무렵 중공군이 서울을 점수하고 계속 남하중이라는 정보가 들어왔다. 나는 군경의 공세가 뜸해진 틈을 타 몸에 지니고 있던 입산 때의 서류 문치를 끄집어 내 정리해 보았다. 땀과 때에

절어 상당부분은 못쓰게 돼 있었다. 그동안 마비돼버린 「사람」으로서의 여유도 하나씩 찾아가게 됐다. 그해 여름은 이렇게 흘렀다.

총기 부상으로 실명

51년 9월 초. 뜸하던 군경의 공세가 다시 시작됐다. 우리는 공세를 피하기 위해 하루는 일림산에, 다음날은 오봉산으로 옮겨 다니고 있었다. 그날은 일림산 골짜기에서 잠이 들었다. 긴장 탓인지 일어났을 때는 아직 주위가 어둠에 잠긴 새벽이었다. 잠시 후 고흥반도 너머에서 눈부신 햇살이 부채꼴처럼 펼쳐졌다. 서둘러 아침식사 준비를 마친 나는 동료들을 흔들어 깨웠다. 서너명씩 한조가 되어 막 손가락을 들 참이었다.

「땅, 따따따따따」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순간 나는 얼굴에 화끈함을 느끼며 그대로 앞으로 쓰러졌다. 잠시 두통이 있더니 이내 썩어 하는 느낌과 함께 머리가 상쾌해졌다.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아, 이제 내가 죽어가는구나.」

나는 죽음을 느끼며 그렇게 상쾌한 기분을 맛보다 의식을 잃었다. 내가 다시 깨어난 것은 다음날 저녁이었다.

「당신들은 누구요? 내가 시방 어디에 있소?」

「움직이지 말게. 자네 눈이 총에 맞았어.」

「내가 살아있다는 말인가?」

「.....」

기습을 당한 대원들은 내가 쓰러지자 일단 그 자리를 피했던 모양이었다. 군경이 내려간 것을 확인하고 그들은 내 시체를 물어줄 셈으로 기습받은 곳을 다시 찾았다가 내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는 다른 계곡으로 옮겼다는 것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얼굴을 만져보았다. 얼마나 얼굴이 부었는지 소름이 오싹 끼쳤다. 잠시 후부터 견디기 힘든 두통이 시작됐다. 그날 밤새 피로운 신음을 하다 잠한숨도 못 잤다. 통증은 갈수록 심해졌다. 갈증도 겹쳤다.

「물, 물, 물 좀 주게」

「참소. 자네 이 상태로 물 먹으면 죽사하네.」

동료들은 출혈을 많이 한 사람이 물을 먹으면 죽는다며 한사코 물을 주지 않았다. 견딜 수가 없었다. 죽으나 사나 고통만 없어졌으면 싶을 뿐이었다. 다 잠이 든 사이 근처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땅을 더듬어 가까스로 물소리의 진원지를 찾아갔다. 그리고 배가 터지도록 물을 마셨다. 죽음 따위는 의식 밖의 것이었다. 차라리 이 고통이 계속될 바에는 죽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 뒤 고열로 신음을 했다. 동료들은 어떻게든 나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이었다. 한 사람이 위

힘을 무릅쓰고 부락에 내려가서 밀가루를 구해왔다. 몇 끼 동안 밀가루를 찬물에 풀어 내 입에 떠넣어줬다. 또 다른 사람은 호박을 구해와 독을 빼는 데 좋다며 그것을 끓여서 상처 위에 붙였다. 그러나 별 소용이 없는 일이었다. 나는 나를 살리는 일은 이미 어려운 것이니 포기하라고 동료들을 설득했다. 부상당한 지 4일쯤 흘렀을까.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던 나에게 귀엣말을 건넸다.

「건강하게」

그리고 나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좌절의 나날

「종회야, 정신이 좀 드냐? 에미다. 아이고 이 불쌍한 것…」

낮익은 목소리였다. 「누구일까? 그래. 맞다. 어머니다.」 너무나도 뜻밖의 어머니 목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의식을 잃은 후 동료들은 밤에 나를 업어다 우리 집 마당에 내려놓고 다시 산으로 올라간 것이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가 이렇게 돼 돌아오니 마을 사람들은 지서에 연락해 내가 자수하러 왔다고 했다. 그리고 즉시 나는 지서에 끌려갔다. 지서에서는 내가 심한 부상을 입어서인지 45일간 「산 생활」에 관해 조사하더니 자수로 처리하고 바로 풀어줬다.

51년 10월. 집에서는 나를 광주 안과병원으로 데려갔다. 당시 집에는 어머니 한분만 계셨는데 집안 친척이 나를 업고 간 것이다. 치료는 52년 3월까지 계속됐다. 회복이 어려운 모양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부상이 심하지 않았던 한쪽 눈은 부기만 빠지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두 눈 다 희망이 없습니다. 퇴원하세요.」

나에게는 「사형선고」였다. 퇴원을 하고 나서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우선 죽어도 고향에 돌아가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어머니는 그 때 고향에 계셨고 나의 간호는 국민학교 동창 한명이 붙어서 하던 상태였다. 나는 그 친구의 등에 업혀 광주를 떠났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고향을 떠나 도회지에서 어머니 모시고 맹인으로 구걸에 나설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다 이내 차라리 죽어버리자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들고 말았다.

친구는 나의 부탁에 따라 나를 장흥군 안양면에 있는 작은집에 데려다 주고 떠났다. 작은집으로 갔던 것은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생각을 정리한 뒤 어머니를 찾아뵙고 결심을 실행하기 위해서였다. 장흥은 우리집에서 20킬로미터 정도의 거리에 있었다.

작은아버지께서는 처참한 모습으로 찾아온 나를 붙들고 통곡을 하셨다. 그리고 쓰라린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시며 날마다 힘을 북돋워 주려 애쓰셨다. 불편한 나의 생활을 손수 돌봐주시는 것은 물론 삶의 포기상태에 있던 내게 살아야 한다는 의지를 불어 넣어 주셨다. 그분의 도움으

로 인해 황폐화된 내 마음 속에서는 다시 생을 연장할 수 있다는 희망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3개월을 작은집에서 보낸 나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52년 여름이었다.

잇따른 비보

두 눈을 잃은 나의 모든 생활은 어머니께서 보살펴 주셔야 했다. 식사며 용변, 바깥출입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한 가지도 어머니가 없이는 어려웠다. 나는 이런 속에서도 무엇보다 살아야겠다는 용기를 잃지 않도록 마음을 다져갔다. 나에게 밝은 생활은 스물 한해⁴⁾로 끝난 것이었고, 앞으로는 언제 죽든 그때까지 맹인으로서 살아갈 방도를 생각해야 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어려움은 책을 접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그런 처지에서 절망감은 깊어갔다. 자연히 시각 이외의 모든 감각을 단련시켜야 했고 그 중에서도 청각을 예민하게 하는 것은 가장 중요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는 방식에서 청각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졌다. 성한 사람의 감각을 반만이라도 따라가기 위해 나는 귀를 항상 민감하게 작용시키는 연습을 했다.

전쟁이 끝나고 집안에 이렇게 박혀있던 나에게 잇따라 불길한 소식이 들려왔다. 인천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내 형님이 인민군 진주로 풀려나 광주에서 전남도당 활동을 하다가 화순군 백야산으로 후퇴한 뒤, 거기서 군경에 잡혀 총살당했다는 것이었다. 작은집 조카(정해두씨)도 승주군에 있는 모우산에서 역시 군경에 총살당했다는 얘기가 들렸다.

비보에 접한 우리 집안은 슬픔에 휩싸였다. 시체마저 찾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비통함은 더했다. 이래저래 내 어머니는 한이 깊이 맺힌 채 불구가 된 둘째아들의 뒷바라지로 시름을 달래시던 나날이었다.

무심한 세월은 다시 흘렀다. 54년 봄 어느 날, 느닷없이 경찰들이 우리집을 덮쳤다.

「정종희 맞지」

「그렇습니다만...」

「지서까지 가져야겠어」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의 통곡을 뒤로 하고 나는 지서에 끌려갔다. 알고 보니 전남도내에서 마지막으로 붙잡힌 「박」이라는 빨치산이 한때나마 연락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내가 걸려든 것이었다. 나는 산에 있을 때의 행적을 다시 조사받은 뒤 유치장에 갇혔다. 1개월을 유치장에서 보내고 장흥검찰청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실명한 채 살아가는 나를 구속시키는 일이 별 소용없다고 판단한 듯했다. 나는 다음날로 풀려나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4) 열아홉 해

결혼과 아내의 헌신

그해(54년) 겨울. 걱정이 닳쳤다. 어머니께서 장티푸스로 누우신 것이다. 요즘 같은 세상이야 장티푸스는 병다운 병축에도 못 낫다지만 그때만 해도 사정은 달랐다. 더구나 사는 곳이 산간 벽촌이었다.

가족이라고는 우리 모자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병환은 생활을 더욱 쪼들리게 했다. 이웃 사람들과 친지들이 가끔 들러 도와주어 살아갈 수 있었지만 갈수록 어머니의 병세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큰댁 식구들과 가까운 이웃에서는 서둘러 내 결혼문제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

만일 어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닳치면 두 눈을 잃은 나를 보살펴줄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인 듯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자신의 결혼문제에 대해 엄두도 못내고 있었다.

『누가 나 같은 맹인을 배우자로 삼겠는가』 하는 자격지심에 옥죄어 있었다.

평생 혼자 몸으로 산다는 일이 얼마나 고달프고 참담할 것인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어찌 해볼 도리도 없는 것으로 여겨 자포자기상태였던 것이다. 그러나 친지들 사이에서 내 결혼얘기는 상당히 심각하게, 그리고 그만큼 구체적으로 오갔다. 여기저기 얘기가 되던 끝에 내 배우자감이 나타났다. 강진에 사는 큰애기라고 했다.

55년 봄. 주위 분들의 도움으로 나는 윤점순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새로운 생활을 맞았다. 불가능하게만 생각했던 결혼이 성사되자 나는 인생의 기쁨을 다시 맛보게 됐고, 부족한 남편이지만 내면적으로나마 곧세게 세파를 뚫고 살아갈 결심을 했다. 한때 위험한 지경에까지 갔던 어머니의 병세도 차츰 회복 기미를 보였다.

불구의 남편과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그 고초를 무엇에 비길까. 그러나 아내는 내색 한번 앓고 살림을 꾸려나갔다. 내가 생계에 직접 나설 수 없는 만큼 아내는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다. 자연히 경제적인 곤란이 가장 힘겨운 문제였다. 한때 3천평까지 됐던 전답도 형님의 옥바라지와 내 병원치료비로 많이 날려버리고 아내가 들어올 때는 1천평 남짓 되는 농토가 고작이었다.

그때만 해도 여자들이 논농사를 도맡아 짓는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때였지만 아내는 농사를 혼자 지어냈다. 그리고 산에서 나무를 해 와야 했고 시어머님 봉양과 활동이 어려운 내 수발을 다 들어야 했다. 그러는 가운데 첫 애(딸)가 태어났다.

아이를 낳고 아내가 계속 농사를 짓는 것은 불가능했다. 얼마 안되는 땅이었지만 동네 사람에게 의뢰해 식량이나 얻어 쓰기로 하고 아내는 행상에 나섰다. 그러나 땅을 의뢰받은 사람은 등기 서류를 조작, 그 땅을 가로채고 팔았다.⁵⁾ 인간사회의 비정함을 톡톡히 체험했다.

생활은 날로 어려워만 갔다. 아내는 보성으로, 장흥으로, 광주로 다니며 물건을 조금씩 떼어 팔아, 남는 이익으로 가족들 입에 풀칠하기에 바빴다. 그러는 가운데 둘째(딸), 셋째(아들)를 얻

5) '사기'라기 보다는 친척의 사업 실패가 더 큰 원인이었음

게 됐고 아내의 부담은 2중 3중으로 늘었다. 그런 아내의 고통을 뻔히 알면서도 어찌 해 볼 도리가 없는 내 자신이 죽고 싶도록 미워지는 때도 많았다.

너무도 외로이 식구들의 생계를 꾸려가는 아내를 생각하면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빛은 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로 부터 우리 가족은 외면당하기 일쑤였다.

아이들 교육에 쏟은 정열

그런 생활 속에서도 나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무엇보다 자식들이 자라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기대가 그쪽으로 모아졌다. 자식들에 대한 기대는 우리 내외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우리는 교육이라면 어떤 고난도 달게 받으리라며 살아갔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자식들도 무능한 아빠에 대해 원망 한번 하지 않으며 일찍부터 부모를 위로하는 등 대견스럽게 커주었다. 자식들은 나의 「희망」이요, 고생하는 아내로서는 「보람」이었다.

아내는 자식교육을 위해 피나는 나날들을 살았다. 시골구석에만 살고 있으면 뽕족한 수가 없어서 큰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71년)6)에는 아내와 아들이 광주로 거처를 옮겼다. 푼푼이 모아둔 돈으로 사글세를 얻어 큰아들이 학교에 간 틈에 아내는 양동시장으로 행상을 나서는 생활이었다. 나는 시골집에서 어머니의 보호로 살아갔지만 그 생활도 주말마다 아내가 내려와 음식과 생활용품을 마련해놓고 감으로써 지탱될 수 있었다. 하루는 집에 내려온 아내에게 안쓰러운 마음으로 내가 입을 열었다.

『불구의 남편을 만나 당신 고생시키는 것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소.』

『이제 와서 그게 뭘 말씀이오. 걱정 마시세요. 해웅이(큰아들)가7) 엄마 고생하고 밤늦게 들어온다고 보리 삶아서 상을 봐둡니다. 요런 아들이 있는디 우리가 뭘 걱정하거시오? 당신 눈은 안보이지만 다른 집보다 착실한 애들을 가졌어요.』

나는 그날 밤 아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울었다.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새록새록 느껴지는 밤이었다.

아내의 피나는 고생으로 자식들은 여느 가정 못지않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자식들도 자라면서 줄줄이 장학생이 돼 쥐 엄마의 짐을 덜었고, 한 아이도 빠지지 않고 학교에서 급장·학생장을 맞아 부모에게 보람을 안겨줬다. 큰아들은 서울교육대학을 나와 현재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한 국민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고, 둘째딸은 한양대학교를 장학생으로 마치고 출가했다. 또 둘째아들은 경기대학에 체육특기자로 재학중이며, 막내딸은 덕성여대에 장학생으로 다니고 있다. 아이들이 학교를 마칠 때마다 내 마음이 무거운 것은 아버지의 「과거」와 관련, 진로에 대한 걱정이었다. 연좌제를 사실상 무시할 수 없는 우리 사회 풍토에서 자식들은 일찍부터 이를 의식해 진로선택을 해왔던 것이다.

6) 정확히 1969년 5월 22일로 큰 딸이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임

7) 취사는 주로 큰딸(효향)에 의해서 해결하고 있었음

북에서 온 친척과의 만남

1980년 11월. 광주비극의 소식이 전해진 직후라서 우리 마을에도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던 때였다. 어느 날 아침 세수를 끝낸 후 마루에 앉아 있는데, 이웃 아주머니가 『뭘 짬차가 두 대나 올라온다요』라고 말을 했다. 워낙 시골구석이라 관공서 차량이 찾는 일은 드문 일이었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불 일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우리 집 문밖에서 멎는지 시동 끄는 소리가 가까이서 났다.

『정종희씨 맞소?』

『예, 그렇습니다만』

『수사기관에서 왔소. 잠시 따라갑시다.』

몇 사람이 나를 붙들어 차에 태웠다. 나는 그날로 서울수사기관에 끌려갔다. 차안에서 요원들은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무슨 욕심으로 간첩노릇을 해』라며 비아냥거렸다. 그때까지 무슨 일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있던 나는 그 말을 듣고 불안과 공포에 몸을 떨었다. 불현듯 12년⁸⁾ 전에 겪었던 일이 떠올랐다.

전쟁기간에 빨치산이 됐다 눈을 잃은 지 17년⁹⁾이 지난 1967년 5월. 기본적인 생활능력까지 박탈당한 삶 속에서 나는 지난 과거의 활동은 까맣게 잊고 생활 걱정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던 무렵이었다. 어느 날 밤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인데 밖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났다. 일어나 보니 큰댁 조카(정해룡씨)가 찾아온 것이었다. 급히 불일이 있으니 따라 나오라고 했다. 나는 큰조카의 부축을 받으며 마을 뒤로 향했다.

잠시 후.

『종희 아재, 나요, 나. 해진이가 왔소.』

너무나도 뜻밖의 목소리였다. 9·28 수복 후 북으로 가서 산다는 소문만 들었던 작은조카의 목소리였던 것이다.

『아니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요? 어떻게 여길 찾았소?』

조카들과 나는 꿈같은 혈육의 만남에 한동안 흐느끼며 서로를 부둥켜안았다. 작은조카는 북한에서 진남포를 출발, 공해상으로 해서 부락 앞 보성만에 들어왔다는 것이었다. 2년 전인 65년에도 고향에 한 번 들렀다가 자기 형님(내 큰조카)만 만나고 다시 올라간 적이 있다는 사실도 그때 알았다. 작은조카는 북한에서 당시 대남공작부 부부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다고 했다. 6·25가 나고 인민군이 서울에 진주하면서 갇혀 있던 서대문형무소에서 나와 서울시 인민위원회 선전부장을 맡고 있다가 9·28수복과 함께 북으로 후퇴한 것이 그의 행적이었다.

그 밤이 이슬하도록 우리는 북의 가족과 이쪽 가족의 안부며 살아가는 얘기를 주고받았다.

『나라가 갈려 있으니 혈육도 못 만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돼 같

8) 13년 전

9) 16년

이 살아야지요. 조국통일을 위해 나는 나대로 북에서, 형님과 아재는 또 남에서 어떻게든 노력 하십시오.」

작은조카는 또렷또렷한 목소리로 얘기를 이어나갔다. 상봉의 기쁨과 현실적인 두려움이 격렬하게 교차되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갔다. 새벽이 되기 전에 조카는 떠났다.

「내가 왔다는 사실은 절대 비밀로 해두세요」

작은조카의 갑작스런 방문은 나뿐만 아니라 집안에 큰 파문을 던졌다. 일의 성격상 집안사람 아무에게나 얘기를 꺼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큰조카와 나는 이 사실을 비밀에 붙이기로 했다. 그때 나를 포함해서 모두 다섯 명의 친족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65년에 처음 내려왔던 일까지 포함해서였다. 소문이 나면 가족들의 생사와 관련되는 중요한 일이었다. 작은조카의 남파가 들통 날 경우에는 큰 조카가 이 일을 혼자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말을 맞추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969년. 정정하던 큰조카가 어느 날 아침상을 물린 뒤 갑작스런 식중독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다. 집안의 기둥이었던 큰조카의 사망 이후 가세는 급속히 기울었다. 그 후 60년대에 두 번에 걸쳐 내려온 작은조카와 만난 사실에 대한 책임은 큰조카의 셋째아들(정춘상씨)이 맡기로 했고 나를 포함한 알만한 집안사람들은 서로의 신변에 불상사가 닥치지 않도록 협조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나로서 70년대는 자식교육과 관련한 경제적 「고난의 연대」였음과 더불어 집안 차원에서는 「긴장의 연대」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고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그 일도 잊혀져갔다. 그러던 것이 80년 들어 수사기관의 수사와 함께 엄청난 재앙이 닥쳐왔다.

간첩죄로 사형 구형

그해(80년) 말 수사기관으로 끌려간 나는 밤낮을 가리지 않는 조사를 받았다. 조사 시작 전에는 엄청난 구타를 당했다. 눈이 안 보이니 어디서 날아올지 모를 몽둥이에 대한 공포는 더욱 컸다. 당시만 해도 신군부의 서슬이 시퍼렁던 시절이라 조사과정의 살벌함이 어찌했을지는 누구나 짐작이 갈 것이다. 며칠 동안의 심한 몽둥이세례 끝에 발톱들이 빠져 나갔다. 그들은 내가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항상 그 이상을 원했다. 자연히 안했던 일도 했다고 볼지 않을 수 없었다. 삶에 대해 완전히 체념했고 차라리 나를 죽여줬으면 하는 생각뿐이었다.

「무슨 지령을 받았어. 빨리 대」

「별 죄의식 없이 혈육을 만났습니다. 지시받은 일은 없고 북에서 나 같은 소경에게 무슨 지시를 했겠습니까?」

「이 xx가 누굴 놀리나. 혼 좀 나아졌어?」

이런 식의 조사과정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구타로 해결했고, 나는 견디다 못해 있는 일 없는 일 다 맞춰줘야 했다. 고통이 계속될 때면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숙명과도 같은 고난에 원망스

러운 생각이 들다가도 처절한 절망감이 나를 짓눌렀다. 보름간에 걸친 조사 끝에 나에게서는 「간첩죄」, 「간첩방조죄」, 「국가보안법 위반죄」가 씌워졌고 그 뒤 바로 서울구치소로 송치됐다. 당시 그 사건과 관련해 앞서 말한 다섯 명의 집안사람들이 모두 붙들려와 공범으로 엮였다.

구치소로 넘어간 뒤에도 고통의 날은 그치지 않았다. 당시 우리 사회를 휩쓸었던 삼청교육대 바람이 구치소 안에도 매우 혹독하게 불어닥쳤기 때문이었다. 교육이라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기합과 구타였다. 앞을 못 보는 나는 성한 재소자들과 똑같이 취급돼 기합을 받고 매를 맞았는데, 주로 줄을 못 지킨다는 것과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가장 먼저, 제일 많이 당했다. 그들은 나에게도 두 눈이 보이는 정상인의 행동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재판이 시작되었다. 81년 3월 18일. 몇 번의 심리과정이 끝나고 1심 구형이 있는 날이었다. 아침 일찍 교도관의 호송 속에 재판정에 도착한 나는 몇 달만에 처음으로 손자뻘 되는 정춘상과 정길상 등 친척의 음성을 들었다. 험난한 시대에 태어나 이 모진 세파를 나와 함께 맞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니 가슴에 울컥 올라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잠시 뒤 검사의 구형이 내려졌다.

『피고인 정춘상·정종희에게 사형을, 정길상에게 징역 15년¹⁰⁾을 구형합니다.』

각오는 돼 있었지만 그 순간 몸이 파르르 떨려오는 느낌을 감출 수 없었다. 나는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비극의 시대 속에 내가 오늘로 두 번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눈을 잃던 순간과 내가 교수대에 오를 순간이 겹쳐졌다. 『그래. 난 오늘 이때까지 모든 것을 버린 채 욕심이 없이 살아왔다.』 그래도 허전함을 지울 수 없었던 것은 방청석 어딘가에서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아내와 아이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유례없는 시각장애자의 장기수 생활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잇따라 항소·상고를 하면서 내 형량은 15년에서 다시 12년으로 경감되었다. 그러나 정춘상은 끝내 사형이 확정되었다. 82년 3월, 2심까지 마친 뒤 나는 광주교도소로 이감됐다. 1년여의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내 의식은 거의 마비된 거나 다름이 없었다. 사형에서 장기수로의 변화는 있었지만 나는 거기에 별 의미를 두지 못할 정도로 피폐해 있었다.

1년 이상을 독방에 기거하면서 말을 잊고 살다 보니 실어증세마저 나타났다. 이러한 내 상태에 살아있다는 의식을 불어넣어 준 것은 광주교도소로 가면서부터였다. 특별사동(사상범을 수감한 사동)에 배치된 나는 그곳에서 남민전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 있던 박석률, 김종삼, 김남주, 차성환씨 등을 처음 만났다. 그들은 나의 말동무가 돼줬고 돌아가면서 한사람씩 나와 같이 기거하며 눈 없이 징역을 살아야 하는 나의 모든 시중을 들어 주었다. 식사, 용변, 빨래 등은 물론 편지 대필에서 책을 읽어주기까지 완전한 내 손발역할을 마다않고 해줬던 사람들이 그들

10) '무기징역'으로 바로 잡음

이었다. 나는 그분들의 도움으로 교도소 삶에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어느 날 나와 혼거하던 박석률씨가 저녁식사 후 잠자리를 깔아주며 내게 말을 건넸다. 「정선
생님같이 앞을 못 보는 분을 감옥에 이렇게 오래 가둬놓는 경우는 세상에 여기밖에 없을 것입
니다.」 그러면서 그는 즉석에서 나의 생애를 소재로 한 시를 한수 지어 들려줬다.

앞 못 보는 정선생

전쟁으로 지새우던

9월 어느 날

한가위 추석 달이 이틀 밤을 부끄러이 넘기고

올라오는 햇살이 산자락을 물들이던

이른 아침

둔중하게 이마를 타격하는 소리도 느끼지 못한 채
선생은 앞으로 쓰러졌다.

두 눈에서

깔깔깔 개울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꺼져가는 의식 속에 아련히 들으며

길고 긴 터널 속에 빠져 들어갔다.

꼬리 째어진

한낮의 해가 기울고

어스름 한기가 느껴지는

저녁

동지들의 두런거리는 소리

천지 사방 앞 간 데 뒤 간 데

분간조차 할 수 없음이여

평생을 다해서 소중하게 써야 할

두 눈동자가 산산이 조각나버렸구나

타는 듯한 갈증

애타게 물을 찾는 고향소리 메아리 되어 들려오건만

매물차게 입술만 적셔주던 동지들의 지혜가

천우신조였구나.

질기고 질긴 거듭남이여.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거듭나고
80년대 초 어느 날
간첩사건에 연루되어 수감되던 날까지
질기고 질긴 거듭남이여.

그 날 뒤로
두 귀가 눈이 되었고
두 발이 눈이 되었고
두 손이 눈이 되어
역사를 남달리 보았다.
사회를 남달리 보았다.
민중을 남달리 보았다.
조국을 남달리 보았다.
마음으로 보는 역사가
손으로 반져보는 민중이
스스로 해방되는 날을 위하여 싸우며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다.
밭농사도 짓고, 논농사도 짓고
사람 종사도 지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다.
역사 농사도 지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다.

그 때 박석률씨가 지었던 이 시는 최근 발간된 그의 시집 『저 푸른 하늘을 향하여』에 수록돼 있다고 자식들이 전해준 적이 있다.

한편 내가 남민전사건 관련 장기수들로부터 용기와 희망을 얻어 차츰 삶의 의욕을 찾아갈 무렵부터는 그동안 제지됐던 가족과의 접견·서신이 가능해졌다. 내가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 아내는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나의 출옥을 탄원하고 다녔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계속해서 자식들로부터 용기를 잃지 말고 살아가자는 위로의 편지들이 들어왔다.

한 가지 가슴 아팠던 사실은 아들과 딸들이 결혼을 하는데도 이렇게 간혀 참석할 수 없었던 「아버로서의 심정」이었다. 그리고 남편을 감옥에 둔 상태에서도 흔들림 없이 혼자서 자식들을 키우고 가르쳐 낸 아내에 대해 깊은 감사와 죄스러운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주위 사람들의 따스한 배려 속에 감옥 생활을 8년 넘긴 88년 12월 21일. 나는 「양심수 석방 조치」로 만기를 4년 남긴 채 꿈에 그리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비극적 현대사의 축소판

출옥 후 나는 서울 도봉산 자락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요즘은 별 출입 없이 교직에 있는 큰아들 내외가 출근하는 동안 손녀와 집안에서 소일하는 것이 유일한 일과다. 오랜 감옥생활로 거동이 불편해서이기도 하지만 앞이 안 보이는 나로서는 혼자 서울거리로 나간다는 일이 어렵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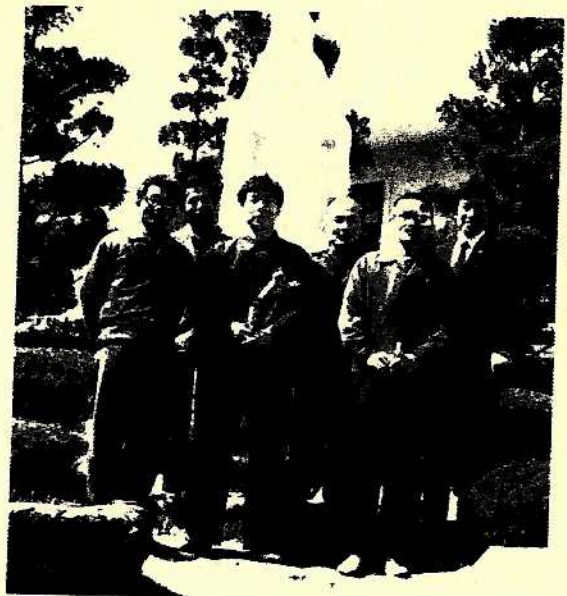
그러나 꼭 가야 할 곳은 아내나 자식들의 부축을 받으며 빠지지 않고 다닌다. 얼마 전에 있었던 남민전사건 관련 출옥자 김남주씨와 김종삼씨의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며 참석을 했다.

89년으로 내 나이 선일곱. 더듬어보니 험난한 세파에 부딪치며 이어온 모진 목숨이 아직도 짙기다. 그러나 감히 비유해 볼 수 있을 것도 같다. 내 육십 인생은 바로 조국이 겪은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잃어버린 내 눈은 허리 잘린 조국의 모습이라고...

붓과 책을 접하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이 거진 반세기가 되고 보니 어눌한 구술이 그대로 전달될지 걱정되기도 한다. 하지만 격동의 시대에 부대끼며 살아온 족적을 더듬어 보는 기회만으로도 가슴 저린 사실들을 새로 떠올리게 된다.

산에서 죽어간 동료들, 나의 형님·조카들, 그리고 같은 사건으로 85년 형장의 이슬이 되어 사라져간 친지 정춘상. 모두 이 땅의 실정법으로는 「죄인」들이었겠으나 널리 보면 분단된 나라가 잃어버린 아까운 젊은이들이 아니겠는가. 움츠러드는 가슴으로 그들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진혼의 염을 보태는 바이다.

누군가 내게 남은 생애의 희망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의술이 발달해 잃어버린 두 눈을(아니 한 눈만이라도) 찾아 아내와 아이들, 세상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말하겠다. 그날이 조국이 통일되는 날과 겹친다면 더없이 좋겠다. 그리하여 잃어버린 혈맥의 마디마디를 이을 수 있다면... ㉠



정가(丁家)네 바깥덕 이야기¹¹⁾

丁茶伊

“할아버지 내가 모실래”하던
 치기 어린 목소리는
 어두운 철창 안 차가운 감옥 속,
 무더진 손끝으로 연필자루를 잡고
 한 자 한 자 적어 보냈던
 이름 석자.
 그 아이였습니다.

가시덤불을 넘어왔다 하여
 혈육을 죄인으로 만들 수는 없었기에
 눈 앞을 가리우는 형벌도
 억울치는 앓았을 것입니다.

사형선고보다 두려웠던 것은
 당신의 아들 딸 들이
 양심수의 석방을
 투쟁의 노래를
 절규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살박이 손녀 딸아가
 맨 처음 배워 부른 노래는
 투쟁의 노래였습니다.

"아부지 나오신데요.."
 어린 여동생의 말에
 큰 아들은
 교탁위에 분필자루를 짓이기며
 뜨거운 것만 툭 툭 떨구다가
 끝내는 교탁 밑으로 들어가
 울음으로 주저 앉았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그 분을 가로막던 쇠자루 같은 어둠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지만..

할아버지에겐 원래부터 빛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주 가끔씩.....

죽순같은 손녀딸의
 작은 온기만이 느껴질 뿐입니다

11) 큰손녀 다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2003년) 교내 글쓰기대회에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소재로 출품하여 입상한 작품이다.

비정(非情)의 시대¹⁾

광주교도소에는 시각장애인이 한 사람 있었다. 그것도 간첩죄로 징역 12년이라는 적지 않은 형기를 안고서. 우리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1982년 특사에서였다. 어느 날 중년의 맹인 한 사람이 그의 종손이라는 젊은이의 손에 이끌려 신입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새 식구가 들어오면 우리는 특별히 야식으로 국수를 주문해 나누어 먹었고, 중앙북도를 향한 시찰구로 모두 나와서 앞 통방으로 신입환영회(?)를 했다. 그것은 우리로서는 환영회이자 신입으로서는 신고식이고 했다. 모두가 독방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사 자체를 하나의 커다란 감방으로 생각했다. 그때 우리가 알게 된 내용은 그는 전남 보성이 고향으로 아주 옛날 일을 가지고 간첩사건을 만들어서 일가친척이 5명이나 구속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서울시 공무원이던 큰 종손은 사형수로 서울구치소에 남았고, 그와 7년형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이던 작은 종손이 광주교도소에 내려오게 되었다는 정도였다.

그 무렵 1980년을 전후해서 삼척간첩단 사건, 임자도 간첩단 사건 등 유별나게 그런 유형의 가족 단위 간첩단 사건이 많았다. 그런 사건들은 대부분 1960년대에 있었던 옛날 일을 가지고 가족 단위로 간첩단을 검거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 사건들이 하필 그 시기에 유독 많이 발생했는지 그것이 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튼 그때는 '가족 간첩', '남북어부 간첩', '재일교포 간첩' 등 간첩의 종류도 참 많았던 시절이다.

나는 그의 종손인 정길상 선생과 친하게 지낸 편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투쟁에서 우리와 같이 행동했고, 무엇보다 특사를 떠날 기미가 전혀 없었다. 대부분 그런 사건의 관련자들은 금방 특사를 떠나갔다. 그런데 그는 별로 억울하다는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사건에 대해서 내가 동정을 표하자 그는 오히려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 집안만큼 희생자가 많이 나온 집도 없을 것ियो. 징역살이 쪼끔 하는 것 가지고는 이야깃거리도 못 돼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해야지요."라고 말하였다.

그는 자기 집안의 내력을 스스로 이야기하곤 하였다. 그의 집안은 보성에서도 손꼽히는 양반지주로서 일찍이 독립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신식공부를 한 자식들은 대부분 항일운동에 투신했고, 그의 할아버지는 상해임시정부든 어디든 정파를 가리지 않고 독립운동자금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그러나 정작 엄청난 희생의 회오리바람은 해방과 함께 시작되었다. 남북이 분단되면서 역사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어 갔던 것이다. 이번 사건은 그의 집안이 겪었던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일

1) 이수일, 「자기 땅에서 유배당한 사람들」, 한겨레출판, 2010, 227~232

뿐이고, 다만 가장 최근의 사건일 뿐이었다. 5대 6촌 이내에서만 총살 또는 사형 등으로 희생된 사람이 무려 8명, 구속 투옥된 사람이 또한 8명이었다. 그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도대체 이런 집안도 다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기막혔다.

우리는 특사를 떠나면서 시각장애인으로서는 돌보아줄 사람이 필요했던 정중희 선생을 우리의 감방으로 모셔왔다. 그렇게 해서 그의 인생 내력을 구체적으로 듣게 되었다. 해방이 되자 고향에서 건준 청년치안대장을 맡았던 그의 친형이 1946년 '인민항쟁'의 주모자로 체포되면서 그의 어린 인생에도 거친 파도가 일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 그는 광주서중에 합격했으나 20km나 떨어진 보성경찰서에 수감되어있던 형님의 면회를 다니는 임무를 맡게 되면서 학업도 포기해야만 했다. 그의 마을은 여순사건으로 반란군과 군경토벌대의 각축장이 되었고, 전쟁의 발발과 함께 보도연맹 학살사건이 이어지면서 어느 지역보다 먼저 피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그가 사는 면지역에서만 수백 명이 총살되었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고 8월경에는 그의 마을에도 인민군이 들어와서 '해방'을 선포했다. 그동안 군경으로부터 모진 핍박을 받았던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오히려 환영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그는 민청에 가입하여 면 인민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인천으로 미군이 상륙하면서 전세가 다시 역전되어 인민군의 철수가 시작되었다. 그를 포함해서 인민위원회에 참여했던 지역 사람들은 갑자기 갈 곳이 없었다. 철수하는 인민군을 따라 나설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마을에 남아있을 수도 없었다. 그들은 단풍이 붉게 물들어갈 무렵 마을과 연결되어있던 일립산으로 피신을 하였다. 이른바 '집단입산'을 한 것이다.

입산 후의 하루 일과는 오로지 행군을 하는 것이었다. 안전지대를 찾아 이 계곡 저 계곡을 따라 헤맸다. 군경의 수색과 추적을 피해서 하룻밤에 수십 킬로미터씩 이동하였다. 쫓기는 생활은 끊임없는 긴장의 연속이었고 굶주림과 추위와의 싸움이였다. 겨울은 모든 면에서 최악의 계절이었다. 군경의 수색과 추적이 심해지고 이동할 때에도 눈발에 발자국을 남겨서는 안 되었다. 그래서 겨울인데도 계곡의 물속을 따라 걸어야 했다. 혹독한 겨울을 넘기고 춘기 공세를 겪고 나니 50명이던 대원이 20명으로 줄었다. 녹음이 우거지고 산과 들에 따먹을 열매가 있는 여름이 그나마 견디기가 나왔다. 그런 하절기에는 군경의 수색도 뜸해진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서 다시 토벌대의 공세가 시작되었다.

어느 날 아침식사를 하려는데 토벌대의 기습을 받았다. 치열한 총격전이 끝나갈 무렵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고흥반도 위로 떠오른 눈부신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어 오고 있었다. 그것이 그가 본 마지막 햇빛이었다. 순간 눈앞에 번갯불이 번쩍하면서 뜨거운 기운이 얼굴을 덮쳤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다. 그가 의식을 회복

했을 때에는 얼굴이 온통 천으로 동여매어 있었고 앞을 볼 수가 없었다. 하필 총알이 얼굴의 측면에서 두 눈을 관통해 실명은 불가피하였다. 그는 엄청난 통증과 고통에 시달렸으나 산에서는 아무런 치료를 할 수가 없었다. 동지들은 그를 하산하기로 결정하고 의식을 잃은 그를 그의 집으로 업어다 주었다. 그는 다시 단풍이 물드는 계절에 두 눈을 잃은 채로 홀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 때 그의 나이 19세였다.

어머니의 정성스런 간호로 기운을 차리고, 전남대 병원까지 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실명은 회복할 수가 없었다. 그나마 심각한 부상에다 자수로 처리되어서 조사만 받고 풀려날 수가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 그 사이에 못 들었던 비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형무소에서 풀려나 입산했던 그의 친형은 토벌대에 체포되어 총살당했고, 작은 집 조카도 같은 일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래저래 그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나, 눈물어린 어머니의 보살핌으로 하루하루 절망을 이겨나갔다.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스스로 삶의 의지를 가져야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다행히 천사 같은 반려자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어쩔 수 없이 부부의 역할은 거꾸로 되었다. 아내가 밖에서 농사일을 하고 그는 집안에서 가사를 돌보며 5남매를 길러냈다. 아이들은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보며 착하고 바르게 자라 주었다.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만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그러나 운명의 여신은 이마저 질투하였다.

1967년 어느 날 북에 가있던 둘째 조카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는 일찍이 항일운동을 했고 전쟁시기에는 서울시인민위원회의 선전부장을 하다가 인민군과 함께 북으로 가서 그 무렵에는 대남사업부 책임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갑자기 나타나서 극적으로 가족상봉을 하고 하룻밤 회포를 풀고 갔다. 사실 그는 1964년에도 자기의 고향집에 다녀갔다. 그때는 자기의 친형만 만났고, 북으로 돌아갈 때 당시 전남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형의 아들을 동반해서 돌아갔다. 마침 여름방학이었던 대학생은 20일 정도 평양구경을 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 지금은 간첩죄로 사형수가 되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당연히 이러한 일들은 그들 사이에서만 극비에 부쳐졌고 만약의 경우에도 큰 조카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그 큰 조카가 1969년 식중독으로 갑자기 죽었고, 그로 인해서 북과의 교신방법이 사라지면서 북에서도 사고로 간주하여 연락을 끊었다. 그런 상당한 세월이 흐른 1980년 12월 어느 날 그것이 가족간첩단 사건이 되어 부활한 것이다.

정종희 선생은 평소에 없는 것처럼 조용히 앉아있었다. 항상 수도승처럼 깨끗한 자세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홀로 명상에 잠겨 있는 모습이였다. 우리는 주로 운동

시간이나 교회당에 나갈 때에 번갈아가며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는 손의 감촉만으로 누군지를 알아보았다. 내가 말없이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으면 “이 선생이구만.”하였다. 평소에 남자끼리 그렇게 손을 잡을 일이 없었기에 우리로서도 그것은 조금 특이한 경험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 잡았던 손의 감촉과 대화 내용들이 오래 기억에 남아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양심수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12년의 형기 중 8년을 채우고 나온 것이다. 그런 류의 사건으로서는 매우 드문 일이었다. 석방 후에도 우리는 유대감을 가지고 서로의 경조사에 잊지 않고 참석하였다. 그런 자리에는 어김없이 사랑하는 부인이나 믿음직한 자녀들의 손을 꼭 잡고 나타나곤 했다. 그도 이제는 이 세상에 없다. 그토록 염원하였던 통일의 날을 보지 못하고 떠났다. 그가 구술로 남긴 어느 글에서 그는 자기가 살아온 시대를 ‘비정의 시대’라고 불렀다.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끔찍하고 한스런 세월들을 달리 무슨 말로 대신할 수 있으랴! 것처럼 불우했던 그의 삶과 저주받은 듯한 그의 가족사는 분단시대의 비극성을 인간적인 고통으로 실감나게 보여준 ‘유정(有情)의 기억’으로 남아있다.